

김영모과자점 성시학, 안스베이커리 오진희 · 박영수

호두대회 · 크림치즈대회 2관왕 겸경사

2004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이하 호두대회)의 과자 부문, 건과 및 파이 부문, 빵 부문 금상 수상자인 성시학 · 오진희 · 박영수 씨는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이들은 2004 전국크림치즈 제품실기경연대회(이하 크림치즈대회)에서도 케이크 및 과자 부문에서도 각각 장려상, 은상, 장려상을 수상해 2관왕의 타이틀을 얻은 것.

성시학 씨는 “과분하다”며 겸손한 소감을 말했고 오진희 씨는 “주위 분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박영수 씨는 “아직도 열떨떨하다”며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열렸던 크림치즈대회와 호두대회를 모두 준비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

세 사람은 만만치 않은 이 두 대회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고 매일 2~3시간 맹연습에 몰두해 값진 결과를 품에 안았다.

과자 부문의 성시학 씨는 “예전부터 호두대회에 꼭 참가하고 싶었다”며 “고심 끝에 개발한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판매해본 뒤 출품했다”고 전한다. 까다로운 고객들의 ‘O.K’를 받은 제품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김영모과자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성시학 씨의 파티 가또는 이제 ‘호두대회 금상 수상작’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갖게 됐다.

2명의 금상 수상자를 배출해 겸경사를 맞은 인천의 안스베이커리는 지금 축제분위기이다. 오진희 씨와 박영수 씨는 같은 점포에 근무하면서 대회 준비도 함께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하는 힘든 과정 속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대회 출전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싶습니다.”

오진희 씨는 많은 경험을 쌓은 뒤 국제대회에도 도전하고 싶은 욕심을 내비친다. 박영수 씨 또한 배운다는 마음가짐과 당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관왕의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할 것을 다짐하는 성시학 · 오진희 · 박영수 씨의 모습에서 참된 제과인의 모습이 느껴진다. 머지 않아 더욱 큰 대회에서 이들이 우승 트로피를 안고 활짝 웃을 것으로 보인다.

글 · 허윤정 기자 | 사진 · 주현진



2004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금상 수상자 오진희 · 박영수 · 성시학 씨(사진 왼쪽부터).

울산광역시지회 안강운 고문

“나는 영원한 제과협회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지회는 내 욕심 평생 가운데 가장 큰 열정을 쏟아 부은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지회에서 만난 안강운 고문은 이순(耳順)을 훌쩍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에너지의 소유자이다. 그가 젊음의 비결로 첫손에 꼽은 것은 바로 협회에 대한 애정.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관에 나와 후배 제과인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캘리포니아호두협회 정신행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의 산 증인

매년 새로운 선수와 제품이 탄생하는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이하 호두대회).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호두대회가 캘리포니아호두협회의 정신행 씨에게는 남다른 게 느껴진다.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한국지사의 창립 멤버이기도한 그녀는 제1회 대회부터 (사)대한제과협회(이하 제과협회)와 함께 호두대회 개최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대회 장소 섭외와 전반적인 행사 진행을 주도하고 참가 선수들에게 캘리포니아 산(産) 호두를 홍보하는 것이 호두대회에서 정신행 씨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제과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서로 조화롭게 의견조율을 해가며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매년 호두대회를 찾는 미국 본회의 임원들은 점점 커지는 대회 규모와 날로 높아지는 출품작의 수준에 크게 만족한다”며 “앞으로 호두대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전한다.

10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억에 남는 선수와 제품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대회에 출전했던 젊은 선수가 업계에서 프로제과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호두대회 출품작이 전국의 제과점에서 인기메뉴가 될 정도로 제과인들에게 중요한 대회로 각인되고 싶다”고 밝히는 정신행 씨. 당찬 그녀가 있는 한 호두대회는 앞으로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더욱 알찬 대회로 거듭날 것이다.

글·허윤정 기자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속 들게 지회를 꾸려나가는 젊은 후배들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4년 동안 울산시지부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1996년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지부장에 선출됐다. 1996년에 그가 직접 ‘회관이전추진위원회’를 꾸려 겨우 마련했던 알토란같은 울산시지부 사무실이 건물주의 사업 부도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비상시국이어서 울산시지부로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울 때 울산시지부장에 오른 그는 1997년 3월 울산광역시지회 승격과 새로운 회관 마련 등의 난제를 무난히 해결해 울산지역에서 ‘역시 안강운’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자기 사업을 뒤로 제쳐두면서까지 협회 일에 발 벗고 나선 자기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 팔팔한 나이지만 내가 죽으면 울산광역시지회장을 치러 달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저는 영원한 대한제과협회 사람이고 싶습니다.”^㉓

글·김미선 기자 | 사진·전문식

